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4) 정념(正念)과 위빠사나

우리는 지금 불교적 지혜의 한 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앞 강에서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잘못 쓴 문장에 길들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불교가 가르치는 '오온(五蘊)'의 법(法)은, '나'에 속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남의 것이었다는 것, 아니 세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핸드백이나 엔피소리, 자동차나 아파트, 명에나 지위 같은 외적 소유물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고, 행동하는 것들까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다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 불교가 알리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점을 깊이 늘 명상해야 합니다. 그 래야 세상의 짐작으로부터, 아니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저기,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군요. 그렇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다르고, 지식과 지혜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

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체화되지 않은, 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지식을 '알음알이'라 하여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른 지혜(乾慧)'는 자칫 수행자의 자만을 부풀리게 하는 심각한 해독을 끼칠 수도 있으니, 깊이 유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계정해 삼학 전부를 동원해야
각설하고, 이 법(法)을 온몸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건너편 팔정도(八正道), 즉 삼학(三學) 전부를 동원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각각을 잠깐만 살펴볼까요. 1) 올바른 이해(正見)와 올바른 의지(正思惟)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올바른 이해에서만 올바른 의지가 나옵니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의지이고, 그 의지는 다음 아닌 생각에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이 둘이 '지혜(慧)'에 속한다면, 3) 올바른 말(正語), 4) 올바른 행위(正業), 그리고 5) 올바른 직업(正命)은 '계율(戒)'에 속합니다. 그리고 6) 올바른 노력(精進), 7) 올바른 관찰(正念), 8) 올바른 집중(正定)은 '선정

(定)'에 속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 둘이 빠지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제대로 득력(得力)할 수 없습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고 행동은 엉망이더라도, 문득 가부좌를 틀고 좌선에 몰입하면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이요, 선가의 어법으로 하면 '모래를 찌서 밥을 짓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학

그런지 불까요. 7) 정념은 내 몸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과정을 차갑게 주시하고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분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반쯤 도통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무엇을 주시하고 관찰하라는 것일까요. 대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육신(身), 2) 감각과 지각(受), 3) 충동과 정념(心), 4) 사유와 의지(法)가 그것인데, 1)은 호흡을 포함한 육신

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남의 일처럼' 차갑게 관찰해 나가는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신부님이-혹은 스님이-운전하면서 차마 욕을 할 수 없어 1-9까지의 번호로 대신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장안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3)의 관찰은 탐욕이나 증오, 선망과 질투 등의 충동과 정념의 실재를 자기기만과 정당화 없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4)는 그 밖

에 마음을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이, 먼저저

주자학의 경(敬)공부와 불교의 정념
아 참, 이 정념은 나중 수출도 하게 됩니다. 주자학이 불교를 그토록 배척했다는 것, 조선조에는 승려들을 도성에 출입도 안 시켰다는 소리는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불교로부터 그 철학적 사고는 물론이고 수련법까지 배워왔습니다. 사 람이나 사상이나 가까울수록 큰 목소리로 '차이'를 강조하는 법이요, 주자학이 불교 형이상학과 심리학에 빚진 것은 나중을 기억하고, 우선 그 수련법에 있어 정념(正念)을 핵심적으로 채택했다는 것만 말씀드려 봅시다. 물론 용어는 바뀌었지요. '경(敬)'이 바로 그것인데, 동사를 살려 '거경(居敬)'이라고도 합니다. 주자학은 경 혹은 거경의 방법으로 몇 가지들 들고 있는데, 거기 아예 서암 화상의 성성(惺惺)도 들어 있습니다. 성성은 <무문관> 제 12칙의 골 자입니다. 서암 화상은 늘 자기 이름을 불러 놓고 스스로 대담했다고 합니다. '아무 개야!' "네." "정신 차리고 언어해(醒醒)!" "네." "차후로는 누구에게도 속아서는 안돼!" "네, 네."
주자학에서의 경(敬)은 마음의 자각과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자기 인품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몸 밖으로 나온 마음을 내 몸 안으로 다시 불러오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자학 또한 불교처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에 빠져 드는 것은, 사물에 마음이 빠져서, 마음의 본래적 각성상태를 잃고 혼침(昏沈)과 산란(散亂)에 빠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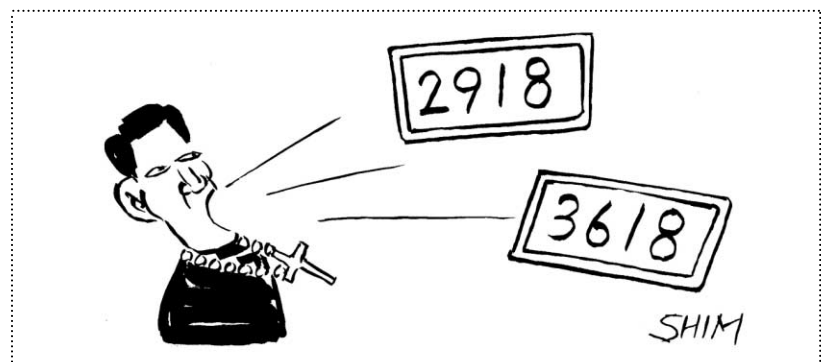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오온법 체화위해 팔정도 삼학 닦아야

과 팔정도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도와주면서 상승해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위빠사나는 팔정도의 하나?

위의 항목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7)정념과 8)정정을 왜 '관찰'과 '집중'으로 번역했느냐는 질문이 있을 법하군요. 여기 몇 마디 설명을 보태 두고자 합니다. 7)정념(正念)은 불교 고유의 의미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 mindfulness라고 합니다. 아, 요즘 새 대안 수련으로 떠오르고 있는 '위빠사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위빠사나는 새롭게 불교에 수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불교가 팔정도와 삼학의 전통이라기보다 화두법과 간화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빠사나는 팔정도의 일곱 번째 항 정념을 현대적으로 수정 개발한 것입니다. 왜



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는 감각적 자극에 대한 감정의 윤택하고 불쾌한 반응을, 거기 내맡기지 말고 주시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느닷없이 끼어드는 차에 대고 바로 욕이 튀어나오고 있는 '위빠사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위빠사나는 새롭게 불교에 수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불교가 팔정도와 삼학의 전통이라기보다 화두법과 간화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빠사나는 팔정도의 일곱 번째 항 정념을 현대적으로 수정 개발한 것입니다. 왜

뽀얗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1분을 놓지 않을 수 있으면 거의 견성 해탈에 다가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제가 왜 7)정념을 '올바른 관찰'로 명명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즈음 이 개념을 두고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들이 많은 듯합니다. 여러 대안이

주장자 따라...

47 조주선사의 지옥



조태호



조주선사(778-897): 중국 산동성 조주부에서 출생. 남전보원 스님에게 법 인가. 80세에 조주성 관음원에 정착. '찍다거' 등 활발한 가풍으로 선계 제정. 120세에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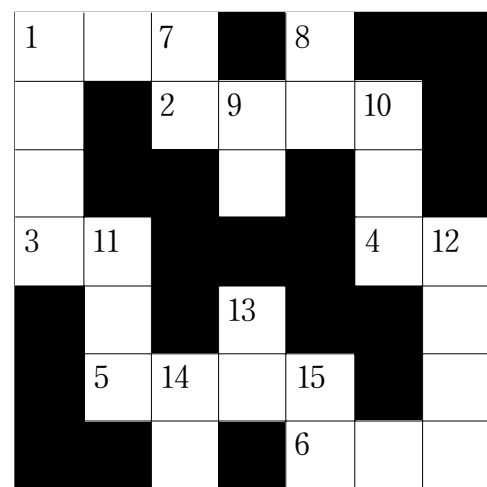
“‘육조단경’을 왜 읽어야 하나요?”

참선수행 초심자들이 꼭 읽어야 할 선어록으로 <육조단경>을 꼽고 있습니다. 왜 <육조단경>을 읽으라고 하는가요? 또 어떤 부분이 참선수행 초심자들에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P 궁금이)

답1: 아마도 <육조단경>이 선종성립사에서 초기에 해당되어 교외의 관계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전체를 알긴 하지만 비교적 개괄적으로 골고루 언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 수행을 좀 해본 사람들은 <육조단경>이 심겁고 미온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조단경>은 후대에 와서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철 스님이 특히 선종인 조계종의 종통과 종지와 종조 등 독자적인 종림의 근거를 확실히 하려고 <육조단경>을 신성시하고 자신을 육조의 아손이라고 자처했는데, 실제 마음속으로는 <조주목> <운문록> <임제록> 등을 훨씬 아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육조단경>은 위경(僞經) 혹은 수사적 창작품이라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육조단경>은 그 뒤의 본격적 어록들인 사기어록 등 전성기의 어록들에서 단 한 구절도 인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기의 조사들이나 제자 등 후대의 승단에서 <육조단경>의 존재를 전연 몰랐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완전히 무시 경멸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육조단경>은 적어도 육조의 사후 200년쯤에 비로소 세상에 나온 데다가 본격 선어록의 내용이나 체취가 없어 어떤 문장가가 다스간의 불교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파상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육조의 전기를 흥미 위주로 창작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토출용공)

답2: 광덕 스님이 역주하신 <육조단경>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스승님을 통해 경이 가르치고자하는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조단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돈오, 정과 해, 선정, 좌선 등 선문에 필수적인 용어에 대해 아주 명확히 육조대사께서 정의를 한 후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선 공부시 개념 파악에 용이합니다. '경'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정점이 되고 있는 문장에 대한 기술도 <육조단경>에 있으며, 청화 스님도 입적하시기 전에 <육조단경> 번역에 많은 신경을 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yeworld)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세계의 역사 2.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3. 여러 가지 일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전을 찍어 발행한 책자 4. 악을 파는 곳 5.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 6. 음용 또는 공업용 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수 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정답은 26면에

1. '세계는 한 송이의 꽃' 7. 개인적 견해 8. 작은 아버지의 다른 말 9. 포대기의 다른 말 10. 회충을 제거해주는 약 11. 쇠가모니가 그 아래에서 변함없이 진리를 깨달아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나무 12. 송산 스님의 발원으로 지어진, 화계사에 있는 선원. 전 세계 수행자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으로 유명함 13. 다른 사람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는 것 14.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華城)이 있는 곳으로 경기도 도청소재지 15.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등을 판단하는 일.